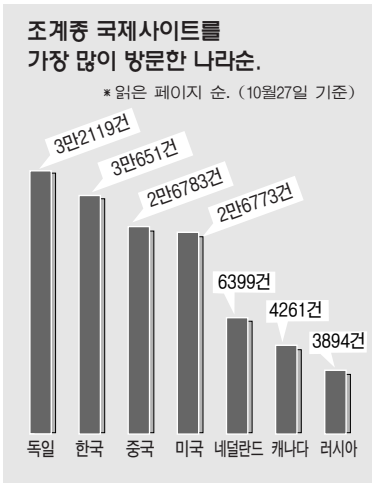


조계종 국제사이트 최근 접속자 두 배 급증

독일 미국 중국 등 ‘외국인 방문객’ 늘어 “한국불교 세계화’ 앞당기는 역할 톡톡히”

한국불교를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이 조계종 국제사이트로 몰려들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조계종 국제사이트(www.koreanbuddhism.or.kr) 접속자가 두 배로 급증했다. 평균 3000~4000여 명이었던 방문객 수가 지난 8월 8667명으로 경종 뛰어올랐다. 9월에는 9226명, 10월에는 7736명이 접속하는 등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대의 방문객이 가장 많아 단순 호기심 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고 접속하는 네티즌 층이 두터운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은 지난 6월부터 전문 통번역사가 관리를 맡아 정기적으로 소식을 업데이트 하면서 사이트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매주 목, 금요일마다 기사와 신간 소개, 외신에 보도된 한국불교 기사 등 새로운 소식을 부지런히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 영문 계간지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 선어록, 수행 관련



질의응답 코너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국제팀이 10월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트를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독일이며, 중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다 많은 콘텐츠를 빠르게 전한다면 ‘한국불교 세계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계종 국제사이트가 세계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야심차게 문을 연 사이트는 몇 년 동안 높은 접속률을 이어오다 관리자 및 전문가 등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네티즌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

무엇보다 사이트 개설 당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관리자가 빠르게 게시물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 헤먼스님은 “언제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웹사이트”라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도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10월26일 오전9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봉암사 인근 광산허가 취소하라”

조계종, 산림청에 공문 승인사유 규명도 요구

조계종이 최근 문경 봉암사 인근에 광산 사용허가를 한 것에 대해 제차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종단 특별종림선원인 봉암사 수행환경과 한반도 산림의 상징인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지난 10월28일 산림청에

광산 허가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문과 허가를 내준 경위를 밝히려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산림청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 면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단 입장에 반하는 산림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산림청장의 재검토 시행 여부, 굴진제굴 허가를 최종 승인한 사유 등을 밝히려는 질의서를 함께 보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동복 산지관리과 주무관은

10월28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미 내부 검토를 마친 사항이며 ‘신뢰보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향후 사업주가 규정대로 채굴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산림청으로부터 이번 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현장 방문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산림청이 광산 허가를 한 지역은 봉암사에서 약 4.5km떨어져 있으며 백두대간 완충지역이어서 훼손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 성호스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에 성호스님(사진)이 당선됐다. 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호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후보자간 단일화 합의로 입후보한 3명의 후보자들이 사퇴함에 따라 산중총회법에 의거해 투표 없이 이뤄졌다. 성호스님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지역색이 있지만, 사부대중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서 교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호스님은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



원회 상임집행위원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 제정국장 등 문화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관음사 부주지와 용인 용덕사 주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하정은 기자

제11대 진각종 총인에 성초정사

11월말 추대법회

진각종 제11대 총인에 성초정사(사진)가 추대됐다. 진각종 인의회(의장 도흔 총인)는 지난 10월25일 서울 총인원 회의실에서 제19회 인의회를 열고 성초정사를 총인으로 추대했다. 이번 회의는 제10대 총인 도흔정사가 오는 11월27일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뤄졌으며, 성초정사의 총인 추대법회는 11월 말 봉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같은날 종의회를 열고 총인에 성초정사



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진각종 11대 총인 성초정사는 제3~9, 11대 종의회 의원과 제6대 중앙교육원장 겸 진각대학장, 제25대 통리원장, 제12대 종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남부심인당 주교를 거쳐 현재 해원심인당 주교 소임을 맡고 있다.

김하영 기자



본·말사 주지인사 10월25일 총무회의 결과



대한불교조계종 교종본찰 봉선사 제14대 주지 진산식

- 모시는 글 -

귀의삼보하옵고, 만추지절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옵기를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는 종단의 대덕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제14대 주지 정수스님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봉선사는 경기북부 불교교정과 불법홍포를 책임지는 교구본사로 교육과 복지, 포교의 최일선에서 더욱 매진하며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봉선사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봉선사 제14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철 안 합장

☎일 시 _ 불기2555(서기2011)년 11월 9일(水) 오후2시

☎장 소 _ 봉선사 큰법당 앞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대신 백미나 성금으로 보시하시면 ‘자비의 쌀’을 남양주시 사회복지과에 전달하여 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472-86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사무실), 527-1956(종무소) Fax. 527-1958

